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제197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현(AD본부)
-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연(출판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안재혁(재경국)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사이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윤(동아이지에듀)
- 정기상(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상(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동아의 시작은 ‘스타트업’
‘혁신 DNA’를 깨웁시다

인촌선생은 1920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당시로서는 뉴미디어인 신문을 창간한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스타트업 정신은 동아미디어그룹을 이끌어온 저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창간 96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안에 내재된 ‘혁신 DNA’를 되돌아봅니다. 미디어환경이 변해도 고객을 우선하는 창의적인 도전을 이어간다면 동아 100년이 되는 4년 뒤 우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4월 1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창간 96주년 기념식에서 30년 장기 근속자 및 동아일보 임원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실에 입각한 의로운 글쓰기가 東亞의 역할”

동아일보 창간 96주년 기념식... 장기근속 임직원 등 표창 김재호 사장 “우리 일의 시작과 기본 다시 생각할 때” 강조

“동아일보에 단 한 줄의 기사를 쓰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의로운 글을 쓰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김재호 사장은 4월 1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동아일보 창간 96주년 기념식에서 동아 100년을 앞둔 지금 우리 일의 시작과 기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인촌 선생의 의로움은 나와 너, 내 편과 네 편을 뛰어넘는 것으로 비판을 받은 사람마저도 인촌의 언론은 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시대의 과제는 바뀌었지만 ‘불편부당 시비비’의 정신과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미디어 환경의 빠른 변화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혁신’과 ‘도전’을 꼽았다. 인촌 선생이 만 29세의 젊은 나이에 당시로서는 뉴미디어인 새로

운 신문, 동아일보를 창간한 것은 혁신과 도전이라며 동아일보에는 혁신과 도전의 DNA가 내재돼 있음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1966년 대한민국 최초로 동아방송이 시도한 마라톤 플코스 생중계가 50년 만에 채널A를 통해 다시 성공적으로 생중계된 것을 두고 “도전과 혁신을 통한 동아 DNA의 재발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만드는 신문 지면도 관점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콘텐츠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이미 동아일보에 내재되어 있는 혁신과 도전의 DNA를 꺼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원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를 시도한다면 발전은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사람을 위한 뉴스와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 본업의 위대함은 변하지 않을 것”



김재호 사장이 4월 1일 창간 96주년 기념식에서 ‘동아일보에 내재되어 있는 혁신과 도전의 DNA를 꺼내 변화를 시도하자’며 창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라며 “전통에 혁신과 도전을 더해 더욱 빛나는 동아 100년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동아 100년을 준비하는 희망찬 마음을 담아 동아일보 찬가를 부르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 임직원 55명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김 사장은 “장기 근속자 여러분들은 동아일보의 여정에 오랜 기간 함께 해주신 자랑스럽고 고마운 분들”이라고 말했다.

경영지원국 장동하 시설관리팀장, 콘텐츠기획본부 박경모 전문기자, 미디어연구소 최수목 부장은 30년 근속 공로패를 받았고, 20년 장기근속자 34명, 10년 장기근속자 18명도 표창을 받았다.

오랜 기간 독자센터를 운영하며 독자와 동아일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장기근속 독자센터 사장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30년 근속 관저독자센터 박계수 사장을 비롯해 20년 근속 2명, 10년 근속 6명 등 독자센터 사장 총 9명이 표창을 받았다.

장동하 팀장은 장기근속자를 대표해 아들 장호수 경위가 쓴 편지 ‘동아일보에 30년 근무한 우리 아버지’로 답사를 대신했다. 장 경위는 편지에서 “회사와 서로에게 의미 있는 파트너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신 아버지를 포함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서현

“채널A 시청점유율 쑥쑥 오르는 것 봤죠”

지난해 0.864%p 올라 타 지상파·종편 통틀어 1위 종편 상승세, 지상파 하락세도 재확인

지난해 채널A의 TV 시청점유율이 지상파와 종편을 통틀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15일 발표한 ‘2015년 TV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널A의 2015년 시청 점유율은 3.520%로 전년보다 0.864%p 포인트 상승했다.

시청점유율은 시청자들이 TV를 시청한 전체 시간 가운데 특정 채널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방송사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전체 TV보유가구 중 특정 채널을 시청한 가구 수를 나타내는 시청률과는 다른 개념이다.

채널A의 시청점유율 상승폭은 MBN(0.680%p포인트), JTBC(0.331%p포인트) TV조선(0.227%p포인트) 등 다른 종편보다 높았다. 지상파 중에서 유일하게 시청점유율이 오른 MBC의 상승폭(0.269%p포인트)보다 2배 이상 높다.

종편에 대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지상파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추세도 재확인됐다. 종편

4사의 지난해 시청점유율은 전년 대비 2.102%p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지상파 3사의 시청점유율은 4.468%p포인트 하락했다. ‘뜨는 종편, 지는 지상파’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채널A가 종편의 시청점유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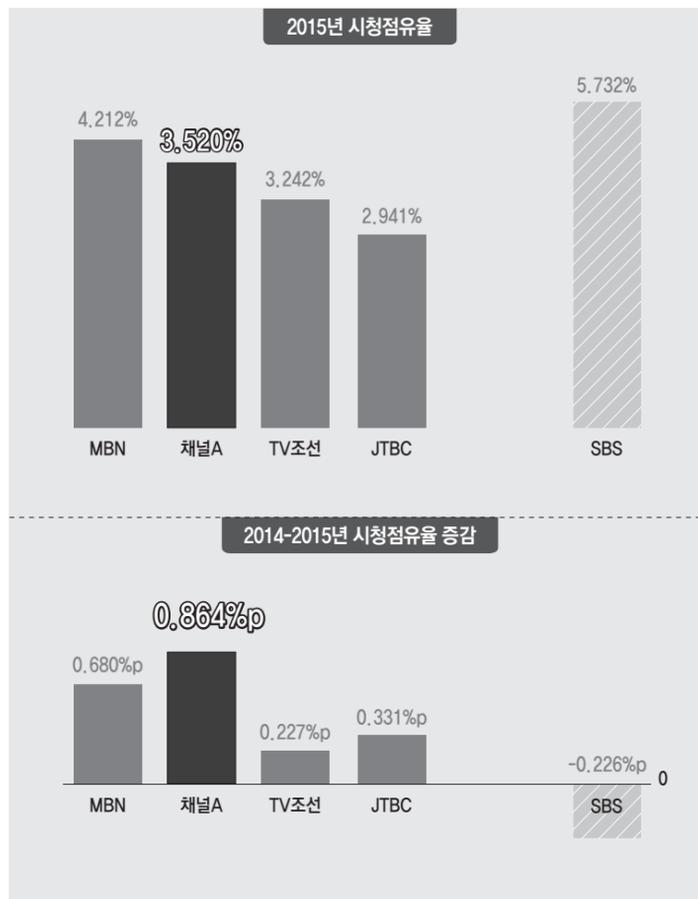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시청점유율 1위는 KBS1(13.210%)이 차지했다. 그 뒤를 MBC(12.240%·지역사 포함), KBS2(11.288%), SBS(5.732%·지역민방 제외)가 있었다.

종편 4사 중에선 MBN(4.212%), 채널A(3.520%), TV조선(3.242%), JTBC(2.941%) 순이었다.

채널A의 시청점유율은 지난해 드라마와 예능에서 두각을 드러낸 tvN(3.660%)과 비슷했으며 지상파인 SBS(5.732%)를 뒤쫓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방통위가 지난해 1~12월 전국 4000가구를 대상으로 TV로 방송되는 방송채널 546개에 대해 실시했다.

편집국 산업부 신우경



청년드림센터, 美 실리콘밸리 진출...세계 속 일자리 개척 나선다

전 세계 IT산업 심장부에 4번째 해외캠프 열어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 현지 인턴 프로그램 추진

지난 3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의 KOTRA 무역관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의 4번째 해외 캠프인 실리콘밸리 캠프 개소식이 열린 것.

신연수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장과 나창엽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장, 이현수 글로벌혁신센터(KIC) 실리콘밸리센터장 등 3명은 이날 현지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한국 청년들의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12년 출범한 청년드림센터가 세계 정보기술(IT)의 중심지이자 미국 스타트업의 본산인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순간이었다. 신 센터장은 “청년드림 실리콘밸리캠프가 한국 청년들의 미국 취업을 위한 허브(hub)가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내에 설치된 청년드림캠프는 앞으로 한국의 우수 인재를 현지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 연결해 주고, 산업디자인 호텔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 청년을 위한 현지 인턴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앞서 본보 취재진은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한국 청년들의 실태를 취재했다. 취업자와 창업자를 합해 30명 가까운 한국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미국 금융회사 캐피탈원에서 근무하는 김영교 씨(28)는 5년 전 실리콘밸리로 건너갔다. 아무 연구도 없었지만 현지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웹 디자이너가 됐다. 그의 오른쪽 팔뚝에는 실리콘밸리 지도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

김 씨는 “일자리가 넘치는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며 “이 곳에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에 문신을 새겼다”고 말했다.

부부 창업자인 재스퍼 손 씨(36)와 문아련 씨(32·여)는 갓 출범한 스타트업 기업 ‘에치’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받을 수 있다”며 “패자부활전이 없는 한국식 창업과는 환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리콘밸리 외에 중국 베이징 캠프는 올해 ‘제3회 청년드림 중국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일본 도쿄 캠프는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한국인 청년들의 창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이 올해 3월 말 청년드림 실리콘밸리캠프가 개소된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시)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업 및 취업담을 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청년드림센터의 국내 사업도 강화된다. 전국 23곳의 청년드림 국내 캠프에서는 올해도 취업박람회와 멘토링,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다. 3월부터는 대학 캠프를 직접 찾아가 청년들에게 금융지식과 취업정보를 주는 ‘찾아

가는 청년드림 금융캠프’를 시작해 대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인턴십 정보를 한데 모아 전해주는 ‘인턴십 허브’라는 모바일 앱을 국내 최초로 만들고, 성북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년 창업자나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주복합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주거복지 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드림센터의 올해 목표는 ‘손에 잡히는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이다. 창간 기념일(4월 1일) 본보 사설은 “동아일보의 청년 일자리 운동은 학생들을 사회 중추세력으로 이끈 ‘브나로드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청년들과 함께 세계 일자리 시장을 열어가야 할 것”을 다짐한 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산업부 박재명

“東亞 100년을 향해 뚝다” 기획취재의 진화 ‘2020행복 프로젝트’ ‘준비해야 하나된다’ 등 화제

공감 넘치는 소재로 뜨거운 독자 반응 이끌어

2020년 창간 100주년을 앞두고 진행 중인 동아일보의 장기 기획이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성장을 위한 과된 행복부터 성찰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2020 행복원정대’, 2013년 시작된 ‘준비해야 하나된다-통일 코리아 프로젝트’는 해를 거듭하면서 깊이 있고 풍성한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2020 행복 원정대’ 프로젝트는 창간 100년을 5년 앞둔 지난해 ‘엄마의 행복’과 동아행복지수 분석으로 시작했다. 첫 주제가 ‘엄마’였던 것은 ‘엄마가 행복해야 집안이 편안하다’는 말처럼 엄마의 행복이 사회의 행복을 가능하는 척도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후 나와 가족의 행복, 더 나아가 남녘별, 세대별 행복을 짚었다. 동아행복지수는 동아일보와 딜로이트컨설팅이 함께 개발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초등 고학년생의 행복’을 주제로 한 기사가 매주 월요일에 소개되고 있다. 주요 인터넷 포털 ‘많이 본 기사’ ‘맛글 많은 기사’ 순위에서 항상 최상 위권에 들며 해외 높은 가독성을 보이고 있다. 기사가 나간 직후에는 ‘내 얘기 같다’, ‘기사 잘 봤다’는 독자들의 격려 전화가 쇄도한다.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20 행복원정대의 주축이 ‘슈퍼 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일보의 여기자들이기 때문이다. 섬세한 관찰력과 본인의 경험이 기사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더 많은 공감대를 만들어

2020 행복원정대 8월 29일 특집

“뭘든지 뛰어난 알파걸?... 공부-외모 스트레스도 알파걸”

남학생보다 수줍음이 많은 여학생이 ‘알파 걸’로 불리는 ‘알파 걸’은 ‘우울한 인간’을 의미한다. ‘알파 걸’은 ‘우울한 인간’을 의미한다. ‘알파 걸’은 ‘우울한 인간’을 의미한다.

경제 어렵고 시위로 몸살 앓지만... “자유의 봄, 포기 못해”

창간 100년까지 지속될 ‘2020 행복원정대’의 올해 주제는 ‘초등 고학년생의 행복’이다. 4년 연속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준비해야 하나된다-통일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첫 기사로 튀지니의 민주주의 현장을 취재했다(아래).

내고 있는 것이다. ‘통일 코리아’ 기획은 매년 새로운 형식과 치밀한 취재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분단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고, 더 나아가 통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2013년 기획 첫해에는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통일 코리아의 주역이 될 10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평화 포럼을 개최했다. 2014년에는 북한과 남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

하고 영국 미국 중국에 흠어져 살고 있는 탈북 어린이들을 취재한 ‘제3국의 북녘 아이들’ 시리즈로 호응을 받았다.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4년 차인 올해는 독재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나라들을 찾아 소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우리 사회내 통일에 대한 긍정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편집국 사회부 전주영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서현

‘색깔’ 있는 달리기 ‘컬러 미 라드 2016’

스포엑스컴, 1만명 참가 이색 달리기대회 성공적 개최

형형색색의 옥수수 가루를 뿌리며 달리를 즐기는 ‘컬러 미 라드(Color Me Rad) 서울’ 행사가 4월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에서 열렸다.

동아일보 스포츠 행사 기획·운영 자회사 스포엑스컴이 진행한 올해 대회는 잠실 주경기장을 둘러싼 3.5km 코스를 뛰는 ‘컬러 미 라드 레이스’와 유명 DJ들과 함께 콘서트를 즐기는 ‘컬러 미 라드 콘서트’로 치러졌다.

1만 여명의 참가자들은 분홍, 파랑, 노랑, 녹색의 컬러존을 통과하면서 다른 색깔의 옥수수 가루를 뿌리며 달리를 즐겼다. 컬러 용액이 담긴 물총을 쏘는 ‘물총존’과 컬러 용액을 부으며 사진을 찍는 ‘젤드존’ 포토존도 인기를 끌었다.

인기 개그맨 박나래와 양세찬의 진행으로 시작된 컬러 미 라드 콘서트는 대회를 축제 분위기로 이끌었다. 레이스가 모두 끝난 뒤 열린 메인 콘서트에는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 개그맨

박명수 등이 출연해 참가자들의 환호성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마라톤, 달리기 행사 중 가장 ‘젊은’ 행사였다. 전체 참가자의 약 82%가 10~20대였고, 외국인 참가자도 21%에 달했다. 참가자들은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색깔에 물든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대회의 즐거움을 공유했다.

컬러 미 라드는 2012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옥수수 전분 가루로 만든 인체에 무해한 컬러 가루를 뿌리며 약 5km의 거리를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뛰는 달리기 대회로 세계 80여 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경쟁과 기록 보다는 참가자들이 친구처럼 어울려 즐기는 게 목적이다. 1km 마다 행사 스태프들이 늘어선 참가자들에게 옥색의 옥수수 가루를 뿌려 행사장은 한 폭의 그림처럼 물들게 된다.

스포엑스컴 운영팀 정준영



‘컬러 미 라드 서울 2016’ 행사 참가자들이 행사 기념 티셔츠와 선글라스 차림으로 익살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해외로 가는 채널A... '이만갑·미사고' 수출성사 앞두고 '두근두근'

'이만갑-미사고' 미래부 '다국어 자막 지원 대상' 선정 각종 예능프로도 해외판매 눈앞

채널A가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채널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하 이만갑)', '잘살아보세' 등 차별화된 탈북 관련 콘텐츠가 해외에서 잇달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교양 드라마 부문은 미국 유럽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꽃가디언, "이만갑, 남북한 관계 물꼬 역할"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에서 탈북자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다며 채널A의 '이만갑', '잘살아보세' 등을 소개했다.

가디언은 "젊은 탈북여성들이 나와 북한 요리, 군대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만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후속 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또 "'잘살아보세' 또한 남남북녀가 야생에서 펼치는 모험과 애정을 만화처럼 표현해내고 있다"며 "이런 프로그램들의 인기가 많아지면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만갑-미사고, 해외 진출 노린다
채널A의 '이만갑'과 '두근두근 카메라 미사고(이하 미사고)'는 '국내 우수프로그램 다국어자막 제작지원' 대상에 선정돼 해외 진출이 용이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해외진출 능력, 공식성, 다양성 등을 따져 '이만갑'과 '미사고'를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총 20편(이만갑 17편, 미사고 3편)의 외국어 자막 제작 지원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두 프로그램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만갑' 자막은 탈북자 인권 문제에 관심이 높은 유럽 판매를 염두에 두고 프랑스어와 영어로 제작된다. '미사고'는 최근 착한 예능에 관심이 높은 중국을 겨냥해 중국어와 영어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외국어 자막이 들어간 프로그램은 올 10월 채널A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한류 열풍 타고 미국·유럽 진출
'천상의 화원 공배령', '굿바이마늘', '판다양과 고슴도치' 등 채널A의 드라마는



비키닷컴(Viki.com)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제외)에 제공되고 있다. '비키닷컴'은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세계 각국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150여 개국 언어 자막과 함께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채널A 예능 프로그램의 해외 판매도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전략실 글로벌비즈니스팀은 4월 초 프랑스 칸에서 열린 '미포맷(MIPFORMATS) 2016'에 참가했다. '미포맷 2016'은 세계 최대 방송 및 영상



'이제 만나러 갑니다' 녹화현장에서 탈북미녀가 북한 평양에 있는 맛집을 소개하고 있다(왼쪽).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잘살아보세' 등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위).

콘텐츠 견본시인 '미피티비(MIPTV) 2016' 사전 행사다. 해외 바이어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개밥주는 남자'와 '머슴아들' 포맷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제작본부 제작기획팀 신호영 경영전략실 글로벌비즈니스팀 이선형

웃음과 소통의 젊은 프로그램 '오늘부터 대학생'

채널A 새 예능 화제... 박나래 장도연 장동민 탁재훈 출연해 캠퍼스 라이프 재현



3월 24일 경기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강의실에서 장도연, 박나래, 탁재훈, 장동민(오른쪽부터)이 진지한 모습으로 교양수업을 듣고 있다.

채널A 신규 예능 '오늘부터 대학생'이 4월 16일 밤 11시 시청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오늘부터 대학생'은 연예인들의 좌중우돌 대학생활 도전기를 그린 리얼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방송인 탁재훈과 개그맨 장동민은 단국대 도예과, 개그맨 박나래와 장도연은 체육교육과에 각각 입학해 한 학기동안 대학생으로 생활한다는 설정이다.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연예인들은 일반 대학생들처럼 과제 때문에 밤을 새우고, 동아리 생활도 함께 한다. 또 성적이 우수한 출연진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4월 21일 경기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촬영현장. 탁재훈은 장동민과 함께

도예과 실습교실로 가서 학생들과 물레로 도자기를 만들었다. 가수·MC활동으로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누렸던 탁재훈은 16학년 새내기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면서 '인지도 굴욕'을 겪어야 했다. 반면 장동민은 섬세한 손기술과 집중력으로 탁월한 실력을 보이며 '도예의 신'으로 불렸다.

같은 시간 박나래와 장도연은 체육교육과 신입생으로 야외수업에 참여했다. 박나래는 "내가 새로 입학했다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어울리다보니 진정성도 생기고 수업 중 재미있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모든 촬영은 대본 없이 설정만 주어진 채 진행된다. 말 그대로 리얼 예능. 그러

다보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장면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한 장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스태프들은 촬영 내내 초긴장을 해야 하고, 드론을 포함해 카메라는 20여대가 동원된다.

'오늘부터 대학생'의 키워드는 '웃음'과 '소통'이다. 젊은이들과는 고민과 생각을 같이 나누고, 중장년층과는 학창 시절 향수와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성수 PD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대학생'은 매주 토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편집국 문화부 김윤중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이선정

'동아일보 vs 채널A' 기협축구 숙명의 1차전

"1차전을 동아미디어그룹 전체의 축제로 만들자" 양팀 선수들 함께 훈련하며 한 팀처럼 대회 준비

2016년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알곡은 운명'에 놓였다.

60여 개 팀이 치르는 토너먼트 1차전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식구끼리 맞붙게 된 것이다. 채널A가 개국한 2011년 이후로 기자협회 축구대회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가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7일 정오에 치러질 첫 경기에서 두 팀 중 하나는 아쉽게 탈락한다.

이번 대진은 최우열(동아일보 노조 사무국장), 김성진(기자협회 채널A 지회장) 기자의 제비뽑기로 정해졌다. 두 팀이 1차전에서 만날 확률은 3540분의

1. 한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과 비슷하다.

최악의 대진은 탓에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아일보와 채널A 축구팀 선수들은 효창운동장에서 연습경기를 함께 하며 한 팀처럼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선수들은 경기에선 한치의 양보없는 접전을 펼치다가도 휴식때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양 팀 선수들은 "동아일보와 채널A의 역사적인 첫 대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동아미디어그룹 전체의 축제로 만들자"며 각오를 다졌다.

동아일보 축구팀 김기용



동아일보 축구팀이 4월 7일 중앙일보와의 연습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한 뒤 자축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부서

- ① 출생연도
- ② 최종학교
- ③ 전 직장
- ④ 입사 후 포부, 꿈
- ⑤ 요즘 관심사



강승현 /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 ① 1985년
- ② 경희대국어국문학·정치외교학
- ③ 문화일보
- ④ 지면을 통해 선·후배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듣고 기록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기운'을 공유할 수 있는 식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⑤ '기삿거리'를 찾는 일과 새 식구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조만간 여유가 허락되면 여행, 스페인 문화, 골목길 탐방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보려합니다.



김단비 /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 ① 1989년
- ② 고려대 생명과학
- ③ 국민일보 쿠키뉴스
- ④ 취재원이 달라진 만큼 접근 방식도 달라지고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취재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제 장점을 고스란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⑤ '보고할 내용'을 찾게 요즘 제 관심사입니다. 관심거리가 기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 ① 1989년
- ② 건국대 경제학
- ③ 전자신문
- ④ 2012년 여름 'DNA 인턴'으로 동아일보와 첫 연을 맺은 지 4년 만에 광화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동아일보의 새 100년을 이끌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 ⑤ 연착륙, 새로운 걸 알아가는 즐거움과 함께 도전하려 합니다. 최근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 세모녀의 건강도 챙기려합니다.



장희진 /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 ① 1982년
- ②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③ 내일신문
- ④ 미디어경영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 성장하겠습니다. 기자직의 경험을 가진 만큼 언론인, 언론사의 사명과 역할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 ⑤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빨리 적응해 최적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해 박사과정도 준비 중입니다. 정돈되고 단순한 삶, 건강한 식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박세준 / 동아일보
출판국

- ① 1989년
- ②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 ③ 신입
- ④ 독자들이 '이 기사는 읽어야만 해'라고 느끼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 ⑤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원을 확보하고 깊이 사귀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 중입니다.



이성철 /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대외협력팀

- ① 1980년
- ② 전남대 생물산업공학
- ③ 중앙엔앤씨
- ④ 전 직장에서의 익혔던 노하우를 융합하여 동아일보가 대한민국 M/S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⑤ "어떻게 하면 부수를 늘릴 수 있을까"



박수유 / 채널A
보도본부 사회부

- ① 1988년
- ②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③ KTV 국민방송
- ④ 사회부에서 기본기를 쌓은 후 외교안보부서 등을 두루 거치며 통일전문기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⑤ 반려동물 교육



조동원 / 채널A
제작본부 제작2팀

- ① 1979년
- ②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 ③ 텔레미디아
- ④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킬러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 ⑤ 롯데하이마트, 함께 입사한 김단비 기자 외 9명



주태일 / 채널A
전략기획본부 사업기획팀

- ① 1980년
- ②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 ③ 머니투데이방송
- ④ 채널A 일원으로 회사 발전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⑤ 두산베어스 V5,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시상파 최초 중계

“채널A는 000이다” 창사5주년 이벤트, 아이디어 붓물

채널A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은 4월 7일 창사 5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널A는 000이다”를 정의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채널A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벤트에서 13개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등은 채널A미디어텍 방송기술팀 정성희 매니저의 “채널A는 wonderlAnd”가 차지했다. 정 매니저는 “채널A에는 호기심을 채워주고, 감동과 유익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이 많다”며 “신나는 일들이 가득한 곳이란 의미의 ‘원더랜드(wonderland)’가 바로 채널A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알파벳 대문자 A를 써 채널A를 연상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상진 변호사



“채널A는 wonderlAnd”라고 정의해 1등을 차지한 채널A미디어텍 방송기술팀 정성희 매니저가 수상으로 받은 상품권 등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의 “채널A는 ‘희’다”와 재무회계팀 강남구 매니저의 “채널A는 가운데길이다”가 공동 2등. ‘희’는 기쁘다, 즐겁다는 한자어 ‘희(喜)’의 의미와 함께 채널A의 슬로건 ‘꿈을 담은 캔버스’의 캔버스를 상징하는 ‘하얏다’는 이미지도 담고 있다. ‘가운데길’은 정직하고 바른 길이란 의미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손다혜

■ 방송말 바꾸기 ■

숫자 표기, 심표 없이 만(萬) 단위로 띄어 쓰세요.

다음 중 숫자를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① 2만3천 원 ② 2만3,000 원 ③ 2만3000 원 ④ 23,000 원

방송 자막을 보면 숫자 표기가 혼란스럽다. 의미만 통한다면 다 맞지 않을까. 위 질문에 정답은 뭘까. 제대로 된 우리나라 숫자 표기 방식은 ③번이 정답이다. ④번은 서양식 표기다. 서양식 표기와 동양식 표기가 혼재되니 헷갈리는 것이다.

아라비아숫자는 수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방식이지만 표기하고 읽는 방법은 동서양이 다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은 10000단위(네 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즉 심표 없이 네 자리마다 만(萬), 억(億), 조(兆) 등의 단위를 넣고 그

계 읽는다. ‘만’ ‘억’ 단위 앞의 숫자를 ‘1,234만’처럼 쓰는 사람이 많은데 심표 없이 ‘1234만’으로 쓰는 것이 옳다. 반면 서양의 경우 1000단위(세 자리)마다 심표를 찍고 1000단위(thousand<천>, million<백만>, billion<십억>)로 끊어 읽는다.

한글 맞춤법 제44항도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고 밝히고 있다. 아라비아 숫자 표기 ‘1,234,567,890’는 ‘12억 3456만 7890’라 표시한다. 단 띄어쓰기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붙여 써도 무방하다. 심익실 심익팀 김용길



4월 5일 인기 걸그룹 스텔라가 식목일을 맞아 서울 청계천로 동아미디어센터 앞 동아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무궁화 묘목을 나눠주고 있다. 스텔라는 “식목일에 무궁화 묘목을 나눠주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많은 분들이 ‘무궁화 가꾸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東友는 몸신이다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간편 운동법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노화로 인해 손상돼 나타나는 것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무릎관절에 주로 발생합니다.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손상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평소 관절과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은 앉은 상태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릎 올렸다 내리기, 한쪽 발을 뒤쪽으로 보냈다가 되돌리기, 다리를 쭉 폼다가 내리기 동작을 반복하면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각 동작은 10회씩 반복합니다. 한쪽 발이 끝난 후 다른 쪽 발도 동일하게 실시하면 됩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한 운동법을 익히려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활용하면 됩니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이선정

1. 무릎 관절 강화



- ①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이 10cm 뜨도록 무릎을 올린다. 3-5초간 유지
- ② 의자 끝에 걸터앉아 무릎을 굽히고 한쪽 발을 뒤쪽으로 최대한 보낸다. 3-5초간 유지
- ③ 무릎에 힘을 주 앞으로 쭉 뻗어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한 후 10초간 버티고 내린다.

2. 고관절 강화 운동



- ① 한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들어올린 후 발목을 다리 쪽으로 당긴다. 6초간 유지
- ② 어깨너비로 다리를 벌린 후 한쪽 다리를 들고 원을 그리며 돌린다.
- ③ 양쪽 발가락과 엉덩이에 힘을 주고 뒤꿈치를 들어올린다.